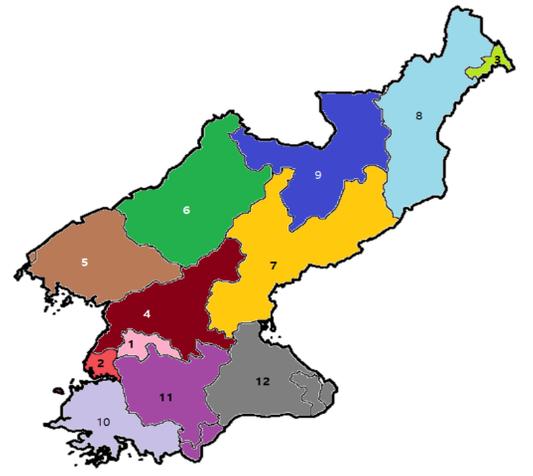


#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

채선미<sup>1</sup>; 정재원<sup>1</sup>; 최희승<sup>1</sup>; 정나리<sup>1</sup>, 김진현<sup>1</sup>, 정유미<sup>2</sup>, 박미화<sup>1</sup>  
 서울대학교 간호대학<sup>1</sup>, 국군간호사관학교<sup>2</sup>



## 연구배경

-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가 붕괴됨
-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건강수준 차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의료비용의 막대한 지출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절실함

## 연구목적

-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모자보건 관련 경험을 탐구하여 북한 주민의 일차의료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 모자보건 관련 남북한 통합의료체계의 방향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 연구방법

- 포커스그룹 면담을 이용한 기술적 질적연구임
- 연구참여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북한에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출산하여 양육한 경험이 있는 15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로, 총 4개의 포커스그룹 면담이 운영되었음
- 대상자의 연령은 29~50세, 북한에서의 자녀 양육기간은 3~28년, 자녀의 재태기간은 36~40주로 출산 당시 자녀의 건강은 보통 혹은 매우 건강하였음
- 참여자의 북한에서의 거주 지역은 함경북도 8명(50%)으로 가장 많았고, 그 외 양강도 5명(31%), 평안도 2명(13%), 황해북도 1명(6%)이었음(표1)
- 연구 시작 전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(IRB NO. 1808/003-006)
-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이며, 자료분석은 주제분석방법을 이용함

## 연구결과

- 9개의 하부 주제와 3개의 주제가 도출됨(표2)
- '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전·산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'
  - 평양과 비평양 지역 간 산전·산후 의료시스템 차이의 심각성
  - 진료수준의 저하 및 경제난으로 병원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전문적 자가관리가 비일비재함
  -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가정분만이 보편적임
- '열악한 아동보육지원체계'
  - 아동을 위한 국가에서의 육아용품 및 영양 지원 부재
  - 남존여비사상의 잔재로 가정 내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, 국가 동원 및 집안일,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부족
- '부적절한 모아건강관리'
  - 지역 불균형적인 영유아를 위한 국가 무료 예방접종 시스템
  - 국가 모자보건교육 및 성교육의 부재로 가정 내에서의 임신중절 및 소파술, 피임술(루프)이 잦음
  - 의료기관보다는 장마당을 이용한 가정 내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민간대체요법이 흥행함
  - 임신 중 영양섭취가 태아 및 출산 후 아기의 영양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모의 순산 여부를 좌우함

<표 1> 연구참여자 특성

NO.	연령(세)	성별	자녀양육기간(년)	재태기간(주)	출산시자녀건강	거주지역
1	36	여	5	40	보통	함경북도 <sup>8</sup>
2	45	여	10	40	보통	함경북도 <sup>8</sup>
3	49	여	28	36	보통	함경북도 <sup>8</sup>
4	36	여	10	40	보통	황해북도 <sup>11</sup>
5	34	여	6	40	보통	함경북도 <sup>8</sup>
6	30	여	4	40	보통	함경북도 <sup>8</sup>
7	34	여	11	40	매우건강	함경북도 <sup>8</sup>
8	43	여	7	40	매우건강	양강도 <sup>9</sup>
9	32	여	4	40	매우건강	평안남도 <sup>4</sup>
10	50	여	10	40	매우건강	양강도 <sup>9</sup>
11	41	여	18	40	매우건강	양강도 <sup>9</sup>
12	43	여	10	40	매우건강	양강도 <sup>9</sup>
13	29	여	6	40	매우건강	평안북도 <sup>5</sup>
14	31	여	7	38	매우건강	양강도 <sup>9</sup>
15	30	여	3	40	보통	함경북도 <sup>8</sup>
16	47	남	8	40	매우건강	함경북도 <sup>8</sup>

<표 2>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모자보건 관련 경험

주제	하부주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전·산 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전·산후 의료시스템의 지역 간 불균형</li> <li>비전문적 산전·산후 자가관리</li> <li>비위생적인 가정분만에서의 노출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열악한 아동보육지원체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을 위한 육아용품 및 영양 지원 부재</li> <li>막대한 역할 부담을 지닌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의 부족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적절한 모아건강관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 무료 예방접종 시스템의 지역 간 불균형</li> <li>모자보건교육 및 성교육의 부재</li> <li>불법 의료행위 및 민간요법에 의존</li> <li>임신 중 불량한 영양상태로 인한 출산 후 자녀의 영양장애</li> </ul>

## 결론 및 제언

-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일차보건의료체계 회복을 위하여 임신 및 출산 후 모아건강을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
- 부모로부터의 관습에 의존하는 비전문적 방식을 타파
- 모아건강을 위한 산전·산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체계 마련
- 여성의 생리적 주기에 맞는 시기적절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
- 여성의 임신 중, 산후 영양상태가 영유아기 자녀의 영양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모아 영양 지원이 요구됨
- 남녀 성불평등이 만연한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에 대한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
- 임신, 출산 과정에서의 남성 우월적 세습이 근절되어야 함
- 북한 내 임신·출산·육아과정에서 부모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

·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